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3월 프로그램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발행인 편지

화제의 강연

한중일 경제인들은 아시아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커버스토리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 주장하는
소신있는 교육학자

나의 경영이야기

에버그린 MST(주) 사장 홍승국

지자체특강

경남 함양군수 천사령

한권의 책

회원&연구원소식

세상을 보는 눈 한국섬생연구원 원장 허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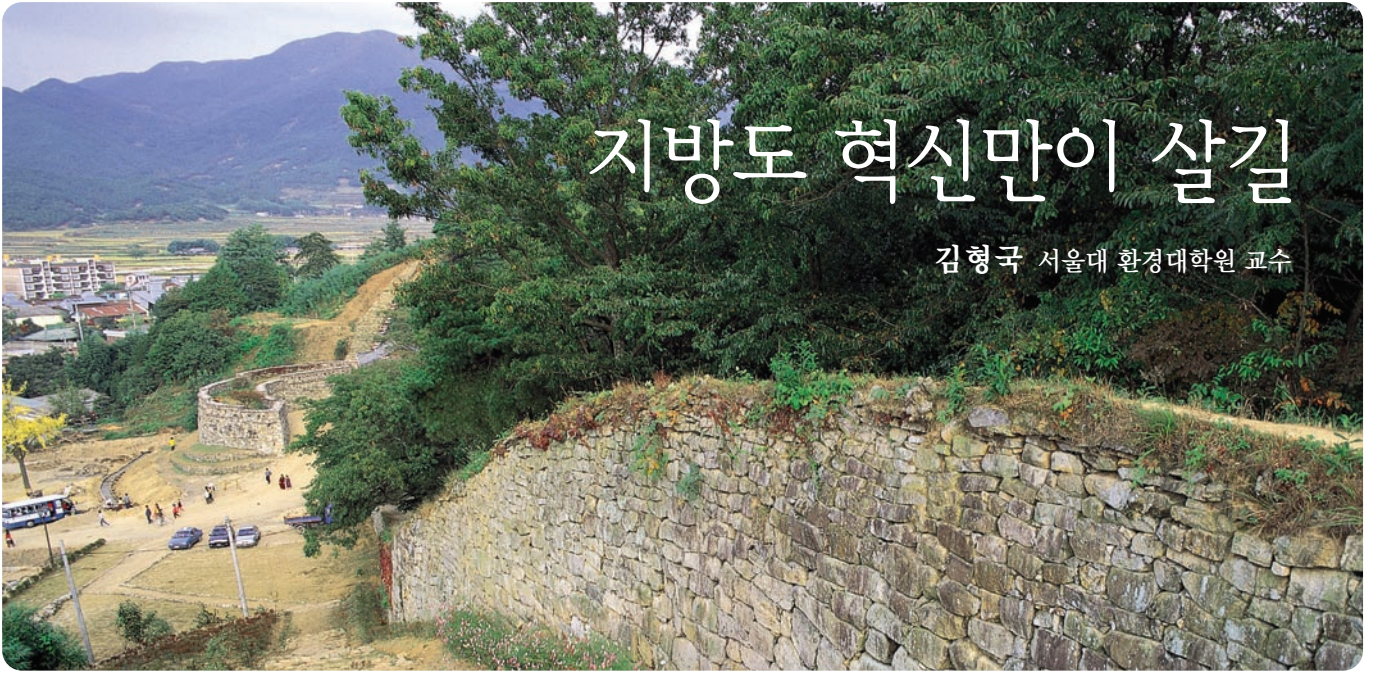
리더십 이야기 / 이시형 칼럼

표지인물 문용린 서울대 교수 · 前 교육부 장관 /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2005 March

3

등록 제49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5년 3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안전개발연구원(KHIID) 주소 : 136-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4 경양빌딩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di.or.kr 디자인 : 디자인로드 www.cofi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02 6323



지방도 혁신만이 살길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름은 한국사람 정서에서 가장 중시되는 덕목인데 그 출발은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잘 간직하는 일이고, 그 완성은 이름을 내는 일이라 했다. 땅을 사람에 비유하는 발상법 또한 우리 전래의 사고방식이다. 왕비 등 큰 인물이 난 고장은 품계를 올리고 역적이 나면 품계를 내리곤 했다. 고장도 명예 내지 이름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대소 고장들이 한결같이 이름 알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색 행사나 축제 등을 개최해서 일거에 타지방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름을 얻게 되면 여러모로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장의 이름난 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외부에서 몰려오면 관광수입도 생기고 고장의 물산(物産)도 판로가 열릴 수 있다. 물건이 바깥으로 팔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자본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물산이나 현장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탄력이 붙으면 고장 그 자체가 명품 같은 명소(名所) 브랜드가 된다. 고장의 이름이 붙은 것은 하나같이 믿음만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고장이 이름 얻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고장이 전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화시대인 까닭에 전 세계 고장이 경쟁관계에 있다. 서로 잘났다고 뽐내기를 겨룬다해서 '장소미인대회'라 하는가 하면, 경쟁이 살벌하다해서 '장소전쟁'이란 말도 생겨날 정도다.

장소전쟁에서 이기자면 고장이 창의를 발휘해서 혁신을 거듭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관도 혁신이란 이름으로 개혁을 외치지만, 진정코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부문이 있다면 그건 기업이다. 기업의 흥망은 창조적 파괴에 매진하는 기업가정신에 달렸다는 것은 사계의 정설이다.

결국 고장이 장소전쟁에서 살아나자면 기업가정신의 혁신체질화가 필수적이다. 이전만 해도 고장발전의 1차 책임은 관청에 있었다지만 전례(前例)를 중시하는 행정방식으로는 세상의 급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는 새로운 방식이 앞선 나라에서 진작 유행했다.

보통사람의 시대가 열린 이제는 정부와 기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공직자나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지방의 내막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지방적 지식은 지방에 살면서 축적한 일상적 경험이다. 이런 지식이야말로 고장발전에 필수적인 살아있는 원재료인데, 원재료 확보의 중요 창구는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에 더해 시민단체가 공조하고 협력하는 방식 곧 협치(協治)가 필수적이다.

어디에서건 혁신은 지난(至難)한 일이다. 그 사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축제 개최나 외부 자본도입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펍 고무적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성공하니까 그냥 따라 해보는 복사판도 비밀비재하다. 복사판으로는 외부에서 자본이나 사람을 끌어오지 못한다. 결국에는 대소 행사가 단체장 재선을 기약하는 '먹자판'으로 끝난다. 이런 파행을 막자면 역시 지방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각종 배움 얻기에 열심히 매진할 수밖에 없다. **人間**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942년 생 / '64 서울대 사회학 학사 / '68 서울대 행정학 석사 / '72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도시계획학 석사 / '83 美 캘리포니아대 도시계획학 박사 / '75~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88~93 조선일보 비상임논설위원 / '90~94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 '93~94 한일포럼 대표단 / '98~현 한국미래학회 회장 / '04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3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여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초찬 강연회를 통해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 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시대 도래, 광복 후 한일 과거 60년의 청산과 화합의 미래

1391회 3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용운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광복 60년을 맞는 한국의 오늘은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의 새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광복 후 지난 6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한편 정체성 확보를 위해 '반공과 반일'의 기치 아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어 왔다. 그 사이 '반공'은 냉전 붕괴와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해 '민족화합'으로 '반일'은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으로 승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 6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공동번영, 공동평화의 아시아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는 지나간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날'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독도는 명백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우리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일간 교류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김용운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을 초청하여 아시아시대를 대비한 한일 과거 청산과 화합의 미래상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日 와세다대 광산과 수학 (1945-47)
- 조선대 수학 학사(1958)
- 美 어번대 수학 석사(1959)
- 캐나다 앨버타대 수학 박사 (1967)
- 한양대 수학과 교수 (1969-93)
- 한양대 도서관 관장, 자연대

학장, 한국전통과학연구소장, 기초과학연구소장, 대학 원장(1972-90)

- 한국수학문화연구소 소장(1993-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00-03)
- 한양대 명예교수(현)

(상훈) 국민훈장 석류장, 대한수학회 공로상 차 (저서) 수학사 대전,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과 일본인, 한국의 수학사,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차

국제경쟁시대의 시장경제와 새로운 경쟁질서

1392회 3월 1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근 SK에 이어 LG전자의 주식을 대거 매입한 소비러, 국내 부동산과 기업에 20조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자본 론스타, 재벌시스템의 해체 등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는 해결하기 힘든 시장상황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부딪쳐야 할 벽은 높기만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에서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이고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무무를 강화하였고 지주회사제도를 보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며 단기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국제경쟁시대의 국내기업 보호추진과 세계적인 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한다.



- 서울대 경제학 학사(1968)
- 美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석·박사(1982-84)
-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1977-83)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정보조사부장(1984-89)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

소장(1989-95)

- 서울시립대 교무처장, 경실련 상임집행위 위원장 (1995-97)
- 신자유포럼 회장(1997-99)
- 대통령 자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1998-00)
-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2000-02)
-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2001-02)
-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위원장(2002-03)

(저서) 한국산업의 성장잠재력 평가와 대응방향, 우리경제를 살리는 20가지 방법, 지역사회&지역기업 차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의 과제

1393회 3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이철우 롯데쇼핑 마트사업본부 사장

할인점 업계의 이른바 '빅 3'가 올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영토확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에 소극적인 후발 중소업체 및 외국계 할인점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는 올해 8~10개 안팎의 점포를 새로 출점하는 등 외형확장과 함께 오래된 점포를 단계적으로 리뉴얼해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3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5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점포망 수를 총 45~47개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또한 영화관을 할인점 최초로 입점시키는 등 타 업체와의 차별화도 시도한다.

특히 롯데마트는 할인점과 상관없이 보이는 '국사시험'을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애국심은 물론 애사심도 생긴다."는 이철우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45억원을 투자해 롯데정보통신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약 7개월에 걸쳐 공동 개발한 '신경영지원시스템'은 회계, 인사,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내부경영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리라 본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철우 롯데마트 사장을 초청하여 롯데쇼핑, 롯데리아를 통해 경험한 경영혁신과 인재양성 전략, 그리고 신경호 회장의 한국투자를 비롯한 세계무대로의 진출 포부와 경영철학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한다.



- 서울대 경제학 학사(1965)
- 서울대 경영학 석사(1970)
- 아주대 경영학 박사(1999)
- 삼성 회장비서실 및 신세계 백화점 과장(1973-75)
- 롯데쇼핑 영업기획과 과장(1976)
- 롯데쇼핑 영업기획 이사(1986-87)

- 롯데쇼핑 기획담당 상무이사(1987-94)
- 롯데쇼핑 영등포점 점장(1994-97)
- 롯데쇼핑 본점 점장 및 영업본부장(1997-98)
- 롯데리아 대표이사 부사장(2002-03)

〈상훈〉 신산업경영대상 관리대상, 한국마케팅학회 마케팅프런티어대상

〈저서〉 실천 프랜차이즈 마케팅전략

유럽 대체의학의 약진과 KANNE社의 100년사 결산인 빵산균의 자연치유 요법

1394회 3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가이스바우어 마르쿠스 獨 말테저병원 원장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난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약 30년 정도가 늘어나 평균 80세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출산과 각종 면역체계의 발달, 치료법의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평균수명 연장의 꿈은 단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내 노화세포의 구조를 바꿔 젊음을 되찾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이미 자연식품에서 근육의 노화속도를 늦추고 질병에 대한 노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의학교육을 통한 질병 치료가 아닌 대체의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대체의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자연요법치료와 동종요법에 관한 저술활동과 강연 등 활발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 말테저병원의 가이스바우어 마르쿠스 원장을 초청하여 유럽의 대체의학 발전사를 살펴보는 한편 독일 KANNE社의 빵산균을 통한 자연치유 요법에 대한 소개와 그 비결을 들어본다.



- 1974년 의학박사 취득
- 정기적 임상연구 시행, 고전적 자연요법과 동종요법 강의(1983-현)
- 獨 뮌헨 자연요법병원 수석 의사 겸 대표주임의사, 회엔 키르헨병원 자연요법 전문 주임 의사(1987)
- 獨 연방정부 위생국 E(식물

요법)위원회 대표위원

- 에리화-로스푸셔아카데미 원장(1995)
- 바드 퀴닉스하펜병원 자연요법 및 동종요법 주임의사(2002)

〈저서〉 수치료법, 신경과 질환의 동종요법, 정신 및 심신 상관 의학의 동종요법, 류마티스성 관절질환치료에 있어서의 면역학적 파라미터, 식물요법과 면역학에서의 고미소 약제 차

글로벌시대 대학의 수월성(秀越性)과 한국의 국제경쟁력

1395회 3월 3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정창영 연세대 총장

지난해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위 5%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학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고 앞으로는 잘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퇴출까지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방침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글로벌시대에 대학의 수월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미국의 경쟁력이 세계 1위인 이유는 미국 대학이 세계 1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0개 정도의 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형평이나 평준화는 국내적인 시야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만 글로벌한 시각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중인 정창영 총장을 초청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시대 대학의 수월성 문제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연세대 경제학 학사(1967)
- 美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제학 석·박사(1969-71)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1971-04)
-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1982-92)
- 연세대 재무처장(1990-94)
- 연세대 기획실장(1992-94)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1995-96)
- 연세대 경영대학원 원장(1995-97)
- 연세대 행정 대외부총장(2000-02)
- 한국경제학회 회장(2002-03)

〈저서〉 IMF 고통인가 축복인가, 경제발전론, 시장의 지배자들 : 열강들의 성장과 퇴보, 경제학원론



KHDI SINCE 1975
오랜 세월 끝에 다듬어진 돌처럼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초청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을 비롯한 연구원의 비전과 활동에 뜻을 같이해주신 연구원의 역대 회원사의 경영자들, 정부인사, 역대 강사,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이라는 주제로 산업자원부, 삼성경제연구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노동연구원, 한국벤처협회 등 중소기업에 관련된 8개의 유관기관에서 강사로 참여합니다. 참여한 기관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발전방안을 들어보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한국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2006년 건학100주년을 맞아 디지털대학, 지식경영대학, 문화선도대학을 추구하는 숙명여대의 100주년 기념관 개관을 기념하며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믿음이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인간개발연구원, • 주 관 : 숙명여자대학교
- 장 소 :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2층 삼성컨벤션센터
- 일 시 : 2005년 3월 8일(화) 오후 4:00-8:00
- 참가비 : 무료

제1부 경제정책포럼

오후 4:00 - 6:30

- ◆ 대주제 : 한국의 未來와 經濟成長의 正道
-한국경제 성장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 ◆ 주제 발표
주 제 : 한국경제의 성장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활성화의 길
강 사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 분야별 발표

No	주제	발표기관
1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 정책 중 경제활성화 정책의 내용과 실행방향	중소기업청(김성진 청장)
2	〈대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	삼성경제연구소(정구현 소장)
3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지원정책의 과제	중소기업연구원(김인호 원장)
4	〈금융지원의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중소기업 육성 경영전략	신용보증기금(배영식 이사장)
5	〈R&D 지원의 차원에서〉 선진경제를 위한 기술혁신 기업의 역할	기술신용보증기금(박봉수 이사장)
6	〈사회 및 인간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개선과 인력양성 정책 활성화	노동연구원(최영기 원장)
7	〈벤처기업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역할과 활성화의 길 그리고 정부의 육성정책	벤처기업협회(조현정 회장)

제2부 기념 리셉션

오후 6:40 - 8:00

강연 후 2부 순서에서는 창립 30주년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연구원의 역대 회원사의 경영자들, 정부인사, 역대 강사, 언론인, 그리고 숙대 출신 여성경제인 등을 모시고 리셉션을 가집니다.

인간개발연구원과 숙명여대가 함께 문화예술인그룹 해오른누리와 숙대 음대의 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빈들의 친교의 장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참석하시어 창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좌석이 부족할 수 있사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참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2203-3500 Fax 2203-1974)

失敗가 주는 膳物의 가르침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밤 이 깊어 아주 캄캄해질 때에만 저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다.” 랄프 월드 에머슨이 남긴 말이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어둠보다는 밝음을 좋아한다. 밤보다는 낮을 더 좋아한다. 저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이곳 낮은 지상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꿈이요, 이상이다. 그런데 낮에는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태양이 주는 따스함과 밝음 속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높은 이상과 꿈을 잉태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석유자원 때문에 부유한 나라들이 됐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중동 사막의 나라들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대종교들이 발원하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에머슨의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숙명적이지만 태어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은 운명이다. 타고난 숙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불가능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선택하고 관리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느냐는 운명의 주체인 자기자신에게 달려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느냐 나쁜 환경에 태어나느냐는 숙명적이지만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던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자기자신의 삶에 대한 고유한 책임을 지고 운명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은 ‘참다운 책임감(True Accountability)’ 이라 할 수 있다.

참다운 책임감과는 다르게 적당하게 자기편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자기 삶에서 잘 되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영광과 명성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만 일이 잘못 되어갈 때는 그 일에 대한 비난을 달게 받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Nice Accountability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일이 그럴 듯하게 잘 돌아갈 때는 자기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즐거워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있듯이 인간의 삶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책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순탄한 삶의 환경에서보다는 실패를 포함한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지구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책임을 지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며 사는 사람이냐를 테스트 당해왔고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테스트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인생은 ‘苦海’라고 했다. 예수님도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고 했다.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매일 실패와 난경(難境)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실패와 어려움에 어떠한 자세로 대응하며 사느냐는 우리의 삶 즉,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운명의 창조자들이다.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웃고 울어서는 안 된다. 전 생애를 걸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용의 이야기로 유명하다. 뜻하지 않은 불운과 실패가 결과적으로 가져다 준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고 있다.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는 도시요 마루야마(일본 윤리연구소 창설자) 선생은 그의 저서 <백만인을 위한 행복론>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나 실패야말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했다. 자기가 겪게 되는 운명을 실패로 만드느냐 새로운 기회와 환경으로 만드느냐는 자기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苦生’이란 말을 좋아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나의 삶에 큰 교훈을 주신 마루야마 선생의 삶의 실천윤리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본다.

인간개발연구원을 창설하고 30년 동안 ‘Better People Better World 캠페인’을 펴오면서 30년간 겪어온 온갖 어려웠던 일들과 실패한 일들이 가져다주는 축복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다시 30년, 50년 아니 100년, 1000년의 비전을 가지고 지난날의 실패와 고난들



이 가르쳐준 교훈, 강화시켜준 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마련해준 데 대한 감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경영자 회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들께 이 글을 드리고자 한다. 人間

한·중·일 경제인들은 아시아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오다케 요시키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 창업자·최고고문

아 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AFLAC)은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기업이지만 전체수익의 80%를 일본에서 올리고 있다. 3,000명중에 10명 정도가 외국인으로써 그 중에는 한국인도 여러 명 있고 아시아인도 있다. 우리는 살아나가기 위한 보험을 다루고 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생각해 왔다. 그래서 이 일을 찾기까지 35년이 걸렸다.

당시에 암(癌)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세계의료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현재 암환자의 90%는 조기치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2001년 9월 11일에 암 수술을 받았다. 내가 암보험을 만든 이유는 고객들의 경제적, 정신적, 건강적 측면에 공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FLAC은 20년간에 걸쳐서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개인보험 보유 계약 건수으로써는 일본생명을 제치고 수위에 올라섰다.



제1회 함양군민 자치대학 2005년 1월 14일(금요일)

‘은리원(Only One)’ 경영을 목표로

우리의 성공요인은 세 가지로 좁힐 수 있다. 첫째 독자노선의 경영이다. 나는 창업 최초 10년 간 보험상품을 암 보험으로만 한정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세계 최초의 개호보험(介護保險)을 도입했다. 최근 일본의 경영전략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선택과 집중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가치와 창조를 목표로 했다. 이것은 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업계의 틀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치의 제공만을 목표로 했다. 나의 인생관은 미지의 도전이고,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손댄다는 것이 나의 철학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회사의 사명은 급부금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 현재 1일 영업일당 12억엔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이왕 지불을 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지급을 하자는 취지 하에 평균 2.1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둘째, 고객 제일주의이다. 우리회사는 당연히 고객의 회사이며 고객의 하인이다. 우리 회사의 급료는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바로 고객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리점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급료는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회사 경영의 원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회사는 주주의 것도 아니고 사원의 것도 아니다. 재작년 우리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에서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 최근에 CSR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CSR을 실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셋째, 미·일 경영의 융합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AFLAC을 만나게 된 것은 미국본사가 창업한지 10년밖에 안 되었을 때이다. 당시 ‘아메리칸 패밀리’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보험회사로써 2,000개가 넘는 미국의 보험업계 회사 중에 불과 400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다. 때문에 회사의 신용, 자금력이 모두 다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암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회사의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암보험이라는 컨셉에서 나는 미국인들의 기독교적인 봉사정신, 인간으로써의 사명감을 느꼈다. 나는 이것을 일본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생각했으며, 일본의 풍토에 맞춰야만 이 상품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미국의 창업자에게 경영은 완전히 일본인에게 맡겨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했다. 미국과 일본의 상행위는 전혀 다르다. 나는 미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지금도 나는 일본의 기업풍토 중에 좋은 것이



라 생각하는 종신고용제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조직도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수평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30년 간 다양한 과제가 나오게 되었지만 권한은 전부 현장에 맡겼다. 해결의 실마리는 현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나는 현장만을 돌아다녔다. 현장은 곧 대리점이며 나는 대리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리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족이기도 하다. 동시에 미국 측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다. 아메리칸 패밀리는 뉴욕증시에도 상장되어있는 회사이다. 우리회사는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라고 할 정도로 정보개시와 공개에 대해서 철저하다. 또한 지배구조라든지 리스크 관리도 미국에서 배웠다.

한번은 미국 본사에서 아메리칸 패밀리가 도산하는 연구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당시에는 사업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주문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 경영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순조로운 때일수록 언제나 리스크를 생각해서 방심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비즈니스를 하라는 주문이었던 것이다.



실패는 교훈의 보고, 실패를 겁내지 말라

나의 네 가지 경영철학에 대해서 말하겠다. 첫째, 탁월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 이는 자기의 특기를 더욱 더 신장시키는 것이다. 여태껏 일본의 교육은 학교든 사회든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특기 한가지만을 가지고는 동경대학교에 입학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도 앞으로는 변하리라 생각된다. 경영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집중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회도 찾아오게 된다. 또한 경영자원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하는 것은 곧 포커스 매니지먼트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다.

둘째,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만을 믿고 진실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현재는 정보과다의 시대이다. 나는 정보과다의 시대는 오히려 정보과소의 시대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확실한 정보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즉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거품경제 시대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 투자라든지 변액보험(變額保險)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영철학의 덕택이었다.

셋째, 실패를 겁내지 말라. 나는 실패는 교훈의 보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 사원이 협력해서 우리 회사의 실패사례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원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 계획이나 전략에 있어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다. 기업의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실패를 겁내지 않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내가 리더로서 사원들에게 호소한 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10년 정도가 걸렸다. 이것의 결과로 인해서 사원들은 나를 더욱 따르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경영자에게는 경력, 실적, 성격, 지도력, 포용력, 통찰력, 책임감, 윤리감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

은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다. 21세기의 경영은 '전원참가형 경영'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나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인간은 한 명도 만들지 않았다고 믿는다. 전원의 힘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노력만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믿는다.

21세기 경영은 전원참가형 경영

내가 처음 창업할 당시에는 사원들조차도 만족스럽게 모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금융업의 상식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사무라이 집단'이라는 업계의 평가가 있었다. 나는 그 당시 기준이 명확해서 원기 왕성하고 전향적인 사람이면 다 채용했으며 학력은 일체 보지 않았다. 물론 국적, 성별도 일체 따지지 않았다. 이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 당시 업계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 잘 알다시피 당시 일본의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호송선단(護送船團)방식'이라고 불리는 행정이 금융업계를 보호하는 느긋한 관행이 있었다. 정부에서 보호를 받고 횡열적인 남들을 흉내내는 경영만 하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당시에는 실질적인 것이 무시되었고 형식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일본의 보험, 금융업계에서는 나와 같이 조화를 무시하고 돌출행동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따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사원의 자주성, 창의력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러한 나의 경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는 조직이 아니라 개개인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물론 나는 집단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시합을 생각해 보자. 축구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또한 집단지향으로써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다. 때문에 기업의 리더로서 나는 사원의 자주성, 책임의식, 자기투자를 장려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는 '전원참가형 조직'을 언제나 지향했던 것이다.

양치기적 리더십

리더십은 기업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일본에서는 조정형 리더가 이상적이라고 얘기되어졌다. 최근 일본에서도 탑다운(Top-down)이 유행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상적인 리더십은 조정형도 아니고 탑다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의 리더십은 양치기적 리더십을 그리고 있다. 양치기는 양의 뒤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때문에 양치기처럼 모든 상황을 본 후에 양들이 옆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뒤에서 유도하는 스타일이다.

최근에 일본의 기업에서 윤리적인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2월 1일에 교육개혁포럼에 위원으로서 참가했는데 이 포럼에는 정치가, 문교부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현재 일본의 기업경영자들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기업인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어떤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일본 교육의 참상은 결국 일본인들의 경제우선주의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이 윤리감, 역사감각, 국제감각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시대에 대한 인재육성과 전망

내 친구 중에 무라야마 세스라는 동경대 학자가 있다. 그는 '문명 800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명이라는 것은 800년을 주기로 문화저조기와 문화고조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서역 2000년에는 서양문명이 잠들고 동양문명이 각성을 해서 눈을 뜨는 시기이고, 800년 주기는 2000년에 크로스 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2000년 이후에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뜻한다. 내 자신은 일본 재계단체인 경제동우회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경제동우회도 아시아시대의 일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에 '일본·아시아·동아시아 회의'에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시아시피 일본의 케잡경제는 1995년에 종료했다는 인식이 있다. 어떻게 보면 1995년까지 일본의 경제는 구미의 경제를 흉내내는 경제라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적경제, 지(知)의 힘 즉, Intelligence Power이다. 언제나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지적경제의 원천이라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일본은 무역입국이 아니다. 게다가 수출입국도 아니다. 아마 30년 전부터 내수경제를 이행했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액은 50조엔 정도인데 비해서 내수시장의 규모는 500조엔이다. 즉 일본도 앞으로는 더욱 더 생활의 고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도 여러 재계활동을 하면서 생활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곳은 건강과 의료서비스 산업분야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주일 전에 동경대 총장에 취임 예정인 고미야마 교수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다. 동경대에서는 공학부 교수 80명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기가 피를 빨 때만큼의 미세한 혈액량으로 유전자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했다. 유전자 해석 뿐 아니라 혈액채취만으로도 인간도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현재 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DNA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성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미야마 교수는 앞으로 수치는 유럽형이나 미국의 것을 따르지 말고 아시아인만의 독자적인 것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고 나도 이에 대찬성하는 바이다. 나는 건강, 환경, 안전, 교육 등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이 토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중·일의 대학간에 긴밀한 제휴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동양의 문화사상 등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의 기술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해야

나는 현재 국제과학진흥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다. 국제과학진흥재단은 일본 경단련이 출자한 재단으로써 197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산·학·관 연계, 공동연구의 촉진, 국제간 지적교류의 추진이다.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는 매년 총회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는 일본의 가사키시에서 열린다. 나는 이 대회의 개최위원회의 회장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한·중·일이 국가 대 국가의 교류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민간 수준의 지역과 지역, 지방과 지방의 기술협력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의 목적이라고 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실현하고 아시아에서 개발된 것들이 아시아에 이바지하고 국제표준의 탄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공헌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IMF위기 후 경제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한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100개가 넘는 자매도시 결연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일본고등학교는 현재 247개이다. 역시 나라와 나라의 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힘이다. 나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더욱 더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가 깊어져서 문화,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길 바란다. **人間**



사진 :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 원장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 주장하는 소신있는 교육학자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前 교육부 장관

“우리사회는 조직 자체가 창의적 사고를 억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서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합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교육학자로서 존경받고 있는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인간개발’에 대한 견해이다.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문 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도덕심리에 관한 연구 끝에 인간 내면의 선악 판단기준을 측정하는 ‘도덕판단력검사(DIT)’를 개발해 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인간에게는 IQ와 같은 8개의 지능이 존재한다는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하는 <지력혁명>을 집필하기도 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교육계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숨은 등불역할을 하고 있는 문용린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점검해 보는 한편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과 다양한 사회활동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前 교육부 장관

1947년 생 / '71~76 서울대 교육학·교육심리학 학사 / '80 서울대 교육심리학 석사 / 美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 '79~81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 '81~현 서울대 교육학과 부교수, 교수 / '86~89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장 / '98~00 서울대 교육학과 학과장 / '00 제40대 교육부 장관 / 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교수님께서도 교육계 활동 외에도 기본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태평로 모임', 올 초 출범한 '자유지식인선언그룹' 공동대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임 소개도 해주시고 활동 내용도 들려주시죠.

교육자로서 살아오는 동안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용기도 있어야 하고 더불어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동료도 있어야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태평로 모임, 자유지식인선언그룹 등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모임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그들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으면서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평로 모임의 경우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각각의 위치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좌절할 때 용기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나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얻는 것도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끌고 있는 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은 연구논문과 출판물 등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 직접 개발하신 '도덕판단력검사(DIT)'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1990년 대학원에서 도덕심리 연구를 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석·박사 과정의 사람들끼리 매주 한번씩 세미나를 하기 시작해 현재 700회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교육과 도덕심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개관적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선과 악의 판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덕판단력검사(DIT)를 개발하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도덕성의 판단 수준을 6단계로 나누는데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도덕적 판단이 성숙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석·박사 논문 100편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지능이론의 소개서인 <지력혁명>이란 책도 출판하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인적자원'이라는 말이 화두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는 의미 정도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심리학 쪽에서 모든 인간은 IQ와 같은 기본적 소질이 있다라는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IQ이론 하나였는데 이것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 IQ만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적

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자연친화지능' 등 IQ와 같은 8개의 지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제목 자체에서 내용이 유추되는데 논리수학적지능과 언어지능은 낮아도 음악지능은 높을 수 있는데 모차르트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카소도 논리수학적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떨어졌지만 공간지능이 뛰어났고, 아인슈타인도 논리수학적지능과 공간지능은 뛰어났지만 자기성찰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많이 떨어졌죠. 자연친화지능은 탐험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대인관계지능은 마더 테레사, 간디, 처칠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운동지능은 운동선수나 무용가들의 경우에 높게 나타납니다.

<지력혁명>이라는 책도 사실은 인적자원개발에서 하나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직업에 관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회도 이롭고 본인도 자신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주시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외아들을 학교폭력으로 잃은 그 아버지가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아버지가 없기를 소망하면서 사재를 내어 설립한 학교폭력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영리 공익단체로 어려운 여건 속의 고통받는 청소년과 그 가정을 위해 봉사함을 기본정신으로 청소년지킴이 운동, 상담, 연구 및 출판,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NGO중 하나입니다. 한 예로 지난 1월 경호 전문업체 에스텍과 협력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청예단과 함께하는 서울시립 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스스로넷'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인터넷방송국으로 청소년을 위한 고급문화와 미디어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개국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월 31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에스텍과 청소년 경호를 위한 경호협약식을 가졌다.

교수님은 저희 연구원의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연에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시는 한편 교육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의 강연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의 과제에 대해서도 명강연을 해주셨는데요. 한국교육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또 평소 생각하시는 ‘인간개발’에 대한 전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훈련되고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식 창출만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교육을 문제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창의적인 것만을 기르는 교육을 하는 곳은 없어요. 창의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과 삶의 틀이 잡혀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학력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이 말할 당해서 창의성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창의적이 될 수 있는데 창의성을 억압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창의성 발휘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조직 자체가 창의적 사고를 억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서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정상권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 학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조직이 창의성을 고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창의성 문제에 있어 학교교육은 창의성 발휘를 위한 기초학력은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회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합니다.

학습사회,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교육부에서 새학기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자기리더십프로그램’의 개발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지요.

우리의 교육이 智·德·體 교육을 병행해야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을 기르는 균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등학교까지는 읽고 쓰고 말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관한 한 우리 교육은 성공하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도덕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도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교교육에 과잉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을 읽고 쓰고 말하고 계산하는 쪽으로 집중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는 인성, 도덕 쪽보다는 지식을 가르치고 지적인 능력을 준비하는 쪽으로도 벅잡니다. 그래서 학교는 앞으로도 도덕보다는 지적인 능력을 구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학교가 도덕과 인성의 문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대책을 의뢰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초등학교 자기리더십프로그램’입니다. 자기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남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리더십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향해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비전이 확실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자신의 모습을 투사시켜 놓고 그대로 성장하고자 노력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자기리더십프로그램의 핵심이고 방향입니다.

특히 교수님께서서는 영재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요.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소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으로 그 안에서 특출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같이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특별한 몇 명을 어릴 때부터 뽑아서 특별하게 키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용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영재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광맥은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인데 그것이 언제나 표출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재능이 스스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평준화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음악이나 체육에 있어 어릴 때부터 영재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뽑히지 않은 학생들은 주눅이 들 것이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거기에 끼워 넣기 위해 과잉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쪽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담당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각자에 맞는 칭찬과 비료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재교육의 첫걸음입니다.

교육·연구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은 초·중·고등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자꾸만 기대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고 자기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조건 명문대 법대나 의대를 가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 적성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로를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질과 적성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쉴 틈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 즐기시는 취미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장만기 회장, 강석진 CEO건설그룹 회장 등과 함께 한자이 선생으로부터 정가(正歌)를

배우던 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바쁜 시간 중에도 모여서 함께 정가를 배우고 11월에는 특별히 마련된 무대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운동은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한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에 1만보 정도를 걷는 셈이 되죠. 이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청계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 2004년 11월 한자이선생에게 배운 정가를 발표하는 무대

교수님께서서는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셨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조찬모임이 좀 더 확대돼서 젊은 CEO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국, 일본, 중국 등의 CEO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세계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글로벌CEO의 역량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한편 조찬모임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사람을 키워서 10년, 20년 후에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연구원의 사업들은 현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을 바꾸고 창의력을 높여주고, 가치관을 바꾸려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나온 30년의 역사 위에 더욱 빛나는 업적들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교수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Dream + Dream

에버그린에서 꿈꾸는 푸른 꿈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

우리는 수많은 브랜드에 둘러싸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브랜드이다. 아침의 첫 칫솔질로부터 밤의 편안한 휴식을 약속하는 침대와 베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소비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브랜드를 우리는 '인기 브랜드'라고 부른다. 그러나 단순히 선호를 넘어 소비자들의 숭배를 받는 브랜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명품 브랜드'라고 부른다.



유럽 감성의 브랜드, 한국에서 재탄생하다!

우리회사는 시계전문기업으로써 1997년부터 arnaldo bassini 제품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arnaldo bassini 시계의 생산은 에버그린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회사가 설립된 것은 1994년. 그러나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초창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고전해야 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홈쇼핑 판매였다. arnaldo bassin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듬해 LG홈쇼핑에 선보였는데 방송 3시간만에 전량 매진되어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당시 홈쇼핑 하루매출이 10억원, 홈쇼핑에서의 대박 행진은 홈쇼핑 업계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사건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arnaldo bassini의 럭셔리 브랜드 입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먼저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후 손목시계, 탁상시계, 골프시계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며 고가의 스위스제품과 저가의 중국제품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던 국내 시계분야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디자인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꾸준한 마케팅 리서치, 해외 판매 딜러 모니터링, 디자인 평가단 활동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여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에 활용한 결과 2000년에는 국제품질경영 보증인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

2000 세종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68~72 한미시티즌시계(주) / '72~99 표준당(시계·귀금속유통업) / '86 범민족올림픽추진위 대의원 / '88 서울시 광진구 아동위원 / '98~현 에버그린MST(주) 사장



▶ 해외박람회(스위스, 홍콩)참가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상표 등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

2001년에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가운데, 2002~3년 연속 우수디자인(GD마크)업체에 선정됨으로써 디자인 연구 개발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그 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의 도약을 꿈꾸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 등의 국내

제2의 도약을 위한 브랜드 런칭 - BELCARINO

‘BELCARINO’는 고품격을 지향하는 국내 골프 토털브랜드로 베이직&심플을 기본 컨셉으로 철저한 고객 지향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4가지 기업철학 즉 퀄리티, 서비스, 스피드, 심플리시티에 근거한다. 또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능성 제품과 좋은 소재 사용으로 고퀄리티를 지향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 만족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명품이라고 하면 값비싼 시계와 보석 등을 떠올렸지만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품목에는 명품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골프라는 하나의 용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지향하는 고객의 가치’를 파는 것이라고 여긴다. 골프에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접목시켜 제품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그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의 가치까지 높여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고객과의 일대일 만남에서 비롯된다. 전혀 다른 각 계층의 인사들과의 만남은 학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BELCARINO, BEST IN THE WORLD! 브랜드가 세상을 바꾼다

명품 브랜드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능이 아닌 이미지를 산다. ‘기업이 만드는 것은 제품이고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브랜드’라는 마케팅업계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만큼 고객의 마음속에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패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의 브랜드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구한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지 않는가! 명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물건과 함께 해당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온갖 이야기를 함께 구매하는데, 이런 요소는 글이나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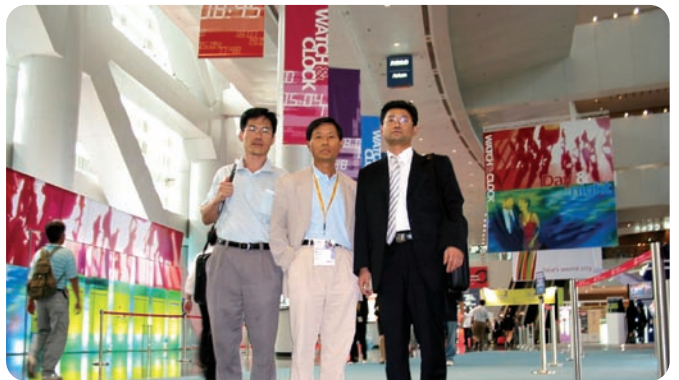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품질이 우수한 수많은 제품을 생산해 왔지만 ‘by Korea’ 명품 브랜드는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 제조산업이 경

쟁력을 잃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원인도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에버그린이 나아갈 길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 이상으로 특별함과 고귀함 그리고 그 가치를 포함한 명품 브랜드를 창조하여 한국 경제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브랜드 ‘BELCARINO’는 한국인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길 바라며 탄생되었다. 그 고귀한 가치에 부응하는 우수한 품질, 세련된 디자인, 차별화 되고 감동적인 고객서비스에 주력할 것이다.

나를 바꾸고 내 꿈을 이루는 마음가짐

한 조직이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자원과 핵심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축구는 열 한 명의 선수들간 호흡이 척척 맞을 때 파워풀한 팀을 이룬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하나의 악기 소리만 홀로 울리는 독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는다. 하나 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라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저 혼자 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조합이다. 에버그린의 가족 구성원은 단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조직에 봉사하고 넓게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人間



▶ 해외박람회(스위스, 홍콩)참가



▶ SIPREMIUM, KOREA GOLF SHOW 2004 EXHIBITION 국내외 골프시장 확대 및 거래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Korea Golf Show를 계기로 벨카리노가 소수의 특장인이 향유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스포츠로 거듭나는데 일익을 하였다.

꿈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

본원은 10여년 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지난 1월 14일 처음 문을 연 '함양군민 자치대학'은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혁신 및 개발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향후에도 관계,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경륜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정보·지식·무한경쟁의 21C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하고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주제로 천사령 함양군수가 직접 개강 강사로 나선 제1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제1회 함양군민 자치대학 2005년 1월 14일(금요일)

우 리나라에서 새마을교육이 성공했는데 새마을교육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배고픔도 있고 또 나라를 발전시켜야 될 절박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교육을 전 기관에 교육했습니다. 전 공무원기관, 전 교육기관, 전 학교에서 새마을 교육하고, 잘살아보자는 노래, 새마을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의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세계의 여러 개발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 왔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했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아는 사람 중에 '명동양복'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실, 바늘, 단추까지 다 가져가서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인천을 통해 단둥으로 해서 신의주로 넘어가서 평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새마을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우리는 공장에 불이 전부 높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공장의 창문이 전부 위에 있다고 인식되어 있어서 공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둡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맡긴 옷을 바느질하는데 이걸 앞에서 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서브하면 밑에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능력이 안 오르니 "옆으로 하시오."하니, 감독이 안 되니까 "옆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옆에서 해라." 그래서 배열을 옆으로 해 보니 옆으로 하는 것이 좀 빠른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새마을교육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전등을 내려라.", "천장에 있는 등을 왜 내리느냐?" "내려야 바로 밑에서 밝지." 이 선을 밑으로 내리는데 그 사람들은 50년 걸렸습니다. 이걸 변화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전등을 밑으로 내리고, 앞에서 뒤로 돌아가던 걸 옆으로 돌리고 하는 이 운동, 산에다가 풀을 심어 가지고 토끼를 키워라, 염소를 키워라 이런 운동을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왔어요. 거기서 가져온 탁자 같은 것도 '외화벌이 탁자'라고 해서 나무뿌리를 깎아 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선물로 가져왔는데 아주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걸 전부 가져와서 사포로 밀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니스 칠 해 가지고 깨끗이...", 거기다 용무늬나 장미나 하나 넣어 놓으면 가격이 10원짜리가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1만원짜리, 이게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게 장사다.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이북사람들이 눈을 떠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록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군님한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북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함양도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수 취임하고 처음 우리 함양군 이장님들 모아 놓고 "우리 함양을 좀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돈을 버는 살기 좋은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옛날 우리가 새마을운동 했던 그 정신을 함양에다 다시 심자."고 했습니다.

함양이 해야 할 세 가지

우리 민족은 항상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새마을운동 하는 것도 그 영향이 상당히 커서 이 민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함양이 골짜기에 뭘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천에 댐을 막아야 합니다. 왜 댐을 막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인원IC에서 차가 들어옵니다. 서울 넘버, 대구 넘버...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쪽 따라가면 인원 지나서 산레 지나서 오른쪽 뱀사골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3대쯤 실상사로 마천으로 들어갑니다. 따라가 보면 2대는 실상사로 들어가고 1대가 마천으로 와 가지고 백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사람들이 "당신 어디서 왔소?" 물으면 "함양에서 왔습니다."하면 "함양이 어디 있소?" 그러면 "지리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양은 경상도인데요?" "거기 전라도인데, 지리산 가봤는데." "어디로 갔소?" "백무로 갔다."고 해요. "백무가 함양 아니오." "백무가..."

백두대간은 함양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양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그 백두대간이 시작하는 함양에서 우리는 백두대간을 어디로 잡니까? 백두대간을 구간으로 쪽 나누어 놔거든요. 1번 구간부터 10번 구간이 함양입니다. 그런데 1번 구간에서 2번 구간까지가 반야봉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반야봉까지가 한 눈에 보이는 것은 함양밖에 없어요. 그걸 오도재에서 딱 보면 보입니다. 세계에서 지리산 보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걸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함양에서 태어났다는 자랑을 하고, 남자가 호기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늘 제가 이 주장을 합니다.



전라도로 빠져서 연재로 올라가서 남원 운봉, 장수로 가서 다시 우리 백전 대안골로 와서 남덕유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이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은 함양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척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바람과 모든 태풍은 흑산도 저 밑에 서남쪽에서 해마다 옵니다. 이걸 지리산이 다 막아주고 중국에서 그 먼지 나는 걸 전부 백두대간이 막아주기 때문에 함양은 공기가 깨끗합니다.

땀을 만드는 이유는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땀으로 인해 우리 함양에 필요한 물이 전부 해결됩니다. 먹는 물, 농업용수 전부 해결되고 홍수가 예방됩니다. 그걸 막으면 마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에 만나 가지고 생초가 잠기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함양의 농산물을 특화해야 합니다. 중국을 가보고, 대만을 가보고, 태국이나 베트남을 가보면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철철 흐릅니다. 눈에다가 농약 치지 마라, 비료하지 마라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심어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데 비료고 농약이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진 추성벼, 아끼바리 이런 게 맛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3등미 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1등쌀이 알랑미입니다. 그러니 함양은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쌀이 최고가 아닙니다. 태국 같은 데는 1모작 한번 하죠. 2모작 한번 하죠. 3모작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쌀 농사 짓는데 몇 번이나 손이 갑니까. 88번 갑니다. 쌀 미(米) 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88번 가야 쌀이 되는 것이니 쌀 농사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데, 인도나 태국에서는 그냥 뿌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경쟁을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으

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배, 사과, 단감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팔아서 올 때 쌀 사먹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보고 파는 겁니다. “너희는 알랑벼 하지 말고 아끼바리를 심어라. 우리는 알랑벼 안 먹는다.” 그렇게 얼마든지 주문하면 옵니다.

세 번째,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요즘은 건강관리에 좋다는 것은 값이 비싸도 다 사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 농사도 잘 지어 놓으면 1가마에 20만원은 물론 3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 안 치고 건강에 좋도록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콩이 몸에 좋습니다. 그것은 여자들 골다공증에 최고입니다. 골다공증에 지금 석류가 좋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입하는데, 석류에는 물론 골다공증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콩은 몸에 전부 흡수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팔렸어요. 내년에 또 엄청 사러 옵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꽃감이 좋습니다. 내가 꽃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꽃감이 없어서 못 팝니다. 오현마을에 박규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현마을 보고 내가 제일 먼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불씨를 키워야 다른 사람이 따라 하기 때문에 불씨를 거기다 키웠습니다. 작년엔 5억원, 금년에 10억원을 벌었습니다. 백전, 병곡 가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돈 좀 법시다. 돈 좀 벌어.” 지금 턱산에 꽃감으로 들어오는 돈이 120억원이나 됩니다.

지금 하자 이겁니다. 돈 법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원 이상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감, 배 이런 것도 심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돈 버는 것은 두 달 반만 노력하면 돈이 주머니에 쑥쑥 들어오는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잠 조금 덜 자고 두 달 반 사과나무해서 올해 1억 5천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발로 마당에 뛰어다니고 또 재미나게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으로 꽃감을 하고 젊은 사람은 사과 심고 그래서 우리 함양이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겁니다. **人間**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

1943년 생 / '69 건국대 상학 학사 / '91 동국대 행정학 석사 / 산청경찰서장 / 진주경찰서장 / 청량리경찰서장 / 경찰청 조사과장 / 경기경찰청 차장 / 인천경찰청 차장 / 경찰청 방범국장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이사 / '02~현 경남 함양군수

관료계의 선각자이며 이상을 추구하는 미래 학자

德山 李漢彬 선생 추모문집

경 제관료, 외교관, 학자, 교육자 등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편 1988~92년까지 본원의 회장으로서 커다란 공헌을 하기도 한 德山 이한빈 선생의 1주기 추모모임이 지난 1월 21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덕산 추모사업회(공동대표 김형국 서울대 교수 등)가 출간한 추모문집 <나라가 먼저지 언제나 그렇지>(나남출판)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행사로 열려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각계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1926년 함남 함주에서 출생한 德山 선생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으며, 6.25 전쟁 중 귀국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제2공화국 때는 35세의 나이에 재무차관에 발탁되었고, 5.16 군사정변 후에는 스위스 대사와 오스트리아 대사 등으로 외교 일선을 누비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승전대(현 숭실대) 총장, 아주공대 학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으며, 10.26사태 이후 과도내각의 경제부총리로 발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행정학회 회장, ASPEN 인문연구소 이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했다.

한편 본원의 회장으로 재직 중에는 정부주도로 설립된 국제민간경제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당시 소련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본원 회원들로 구성된 20여명의 방문단이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하게 하는 등 본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번 추모문집에는 선생의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交遊관계를 자랑하듯 가족과 친구, 후배 및 제자 등 94명이 쓴 111편의 글이 실려 있다.

이흥구 前 국무총리는 선생을 '선구자', '선각자'로 꼽으며 "이한빈 선생은 1968년 당시로는 먼 후일처럼 생각되던 2000년의 한국의 모습을 생각해보고자 학자, 관료, 기업인 등을 모아 '2000년회'를 출범시켰고, 이것이 한국미래학회로 발전하여 미래예측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정재석 前 부총리는 선생을 '정책관료의 첫 모델'이었다고 단정하며 "그 이후로 경제다사(濟濟多士)의 경제관료들이 나왔으나 아직껏 비전할 만한 후배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소개했다.

장만기 본원 회장도 선생에 대해 6.25 전쟁 중에 애국심에 못 이겨 안전지대인 미국을 뒤로하고 조국에 귀국했다며 "내가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몇몇의 선생님들을 찾아 뵈게 됐는데, 몇 마디의 지적과 함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며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크게 격려해 주시는 등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었

다."고 회고했다.

한편 최각규 前 부총리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선생을 '잊을 수 없는 존경하는 부총리님'으로 생각한다고 "선생님은 지행일치(知行一致)의 선비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려울 때의 위기관리자(crisis manager)였습니다. 선생님은 관료사회의 상아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상을 추구하는 선각자였습니다. 즉 선생님은 현실보다는 미래를, 부분보다는 전체를, 어둠보다는 밝음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중시하는 이 나라 관료계의 선각자였으며, 이상을 추구하는 미래 학자였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선생이 편안히 영생하시기를 기원했다. **人間**



회원&연구원 소식

회원소식

• **기업은행(은행장 강권석)**은 경영감사체제 구축 등 자체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SH공사(사장 김승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노동부에서 실시한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감사원 평가에서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31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2005년도 전국감사관회의에서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 **KCTC(회장 신태범)**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추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일신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집중근무시간 운영과 조기출근 캠페인을 전개했다. 집중근무시간 운영은 업무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회사 근무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이다. 조기출근 캠페인은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 전에 일일 업무계획 수립 및 준비시간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으로 출근 시간을 앞당겨 생기는 여유를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준비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지난해 9월부터 조직과 사업전반에 대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새농촌 새농협운동'이 현장중심의 개혁운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농협은 현장의 농업인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찾고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확산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장토론회는 2월 19일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을 시작으로 26일에는 경북, 3월 5일에는 충남에서 각각 열린다. 또한 농협은 중앙본부부서 주관의 사업테마 토론회와 지역본부 주관의 지역현안 토론회를 각1회 이상씩 열기로 하는 등 연중 총 40여회의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사업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 **기네스리그룹 이왕열 회장**은 1월 23일자로 제16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이 회장은 1989년 이후 지금까지 17년째 미국 링컨대 한국연

락사무소 대표와 객원교수로 활약해왔으며, 2월 3일 대외협력처 부처장 겸 경영학 부교수로 승진하고 오는 5월 28일 86주년 기념 행사 및 졸업식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 **시사여성주간신문 우먼타임스(발행인 신숙희)**가 3월 10일 창간 4주년을 맞이한다. 2001년 창간한 우먼타임스는 그 동안 양성평등과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05년 목표를 남성 파트너십 활성화에 두고 있다.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2그룹(회장 전순표 / 총무 우창욱)**의 117회 3월 정기모임 및 새해 첫 만남으로 저녁모임(전 회원)과 골프모임(희망 회원)을 3월 3일(목)에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녁모임

- 일시 : 3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타워호텔 만복림(02-2236-2121)
- 연사 : 박세직 한국청소년마을 총재
- 주제 : 한반도 안보정세전망

◎ 골프모임

- 일시 : 3월 3일(목) 오전 9시 45분
- 장소 : 이스트밸리CC (031-760-3800~1)

• **이종기업동우회 3그룹(회장 황석희 / 총무 최석태)**은 정기모임을 3월 24일~26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유채꽃 관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그룹 회원께서는 미리 체크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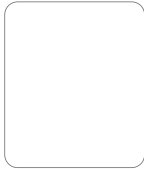
• **차이니클럽(회장 홍순영 / 사무총장 이두호)**의 3월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차이니클럽은 지난 1월 정기모임에서 간사로 남기열 우리증권 부장과, 박길준 제원회계법인 회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아 래

- 일시 : 2005년 3월 15일(화) 오후 7시
- 장소 : 인사동 한정식당 이조
- 주제 : 등소평의 일대기에 대한 독후감 발표
등소평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YCF(회장 김상래)**의 3월 정기모임은 21일(월) 오후 7시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www.khdi.or.kr)의 소모임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CF회원께서는 미리 체크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신규회원



서양수 (주)성보플랜트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양천구 신정5동 881-15 성은빌딩5층
- 전 화 : 02-841-6332
- 팩 스 : 02-2606-4163
- 추 천 인 : 이종원 다영산업개발 대표이사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교수(개인회원)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 전 화 : 02-387-1924
- 팩 스 : 02-383-1924
- 추 천 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박영하 LG 기공(주) 고문(개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번지
- 전 화 : 02-554-5281~2
- 팩 스 : 02-2606-4163
- 업 종 : 건설 외



최용호 (주)일률 대표이사(준회원)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36-12
- 전 화 : 031-650-1111
- 팩 스 : 031-651-9990
- 업 종 : 가구제조



최재만 태평양물산(주) 부사장(준회원)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21
- 전 화 : 02-850-9012
- 팩 스 : 02-830-1011
- 업 종 : 의류제조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이해성 덕성 사장의 장녀 희승양의 결혼식이 3월 1일 오후 1시 30분 감람교회에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바랍니다. (031-272-7755)

삼가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류용상 회원(호텔롯데 영업본부장)의 모친(故 김태숙 여사)께서 지난 2월23일 노환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연락처 02-759-7082~4)

2005년 신규회원의 날

본 연구원에서는 신규로 가입하신 회원들께서 보다 깊은 이해와 친숙한 분위기에서 즐겁고 적극적으로 회원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2005년 1/4분기 동안 가입하신 신규회원님과 추천을 해주신 회원님을 모시고 친목과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3월 22일(화) 오후 7시
- 장 소 : 신사동 향토골 예정
- 참가대상 : 2005년 신규회원, 추천해주신 회원
- 참 가 비 : 무료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재)에덴스포츠타운	김창호 사장	(3월 1일)
성원교역(주)	김창송 본부장	(3월 1일)
제이씨페니구매회사한국지사	전종현 지점장	(3월 1일)
(주)엠씨씨	정경현 사장	(3월 2일)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	(3월 3일)
BY 성형외과	최문수 원장	(3월 4일)
한마음특허사무소	구교근 소장	(3월 5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김재기 회장	(3월 10일)
(주)퍼시스	김영철 명예회장	(3월 11일)
중앙파이낸스(주)	이재욱 대표이사	(3월 15일)
한국씨티은행	하영구 은행장	(3월 16일)
고려도서무역(주)	김병수 회장	(3월 16일)
협운해운(주)	마상곤 회장	(3월 19일)
유진종합개발(주)	유재필 회장	(3월 22일)
(주)일삼	정우철 사장	(3월 2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이태섭 회장	(3월 25일)
(주)코스틸	박재천 회장	(3월 30일)
유한김벌리(주)	문국현 대표이사	(3월 30일)
하이젤(주)	권희설 사장	(3월 31일)

회원&연구원 소식

연구원소식



• 2005년 정기이사회를 지난 2월 18일 오전 7시에 롯데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유상욱 감사(코리아나화장품 회장)**를 비롯하여 25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2004년도 감사보고와 2005년도 사업보고를 결의하였습니다. 심의된 안건으로 2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들은 모두 결의되었습니다.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건의된 제안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퇴임 의사가 없을시에는 연임된다.
-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부금모금 운동을 전개, 목표달성 금액을 발표하고 전 임원 및 회원이 협동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재도약에 이바지 하자.
- 회장단을 포함한 임원진은 재정적으로 또는 활발한 참여로 일반회원과 차별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자.
- 금년을 창립 30주년의 해로 선포하여 일자를 정하지 않고 모금운동을 펼쳐자.
-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참신하고 젊은 강사를 초빙하여 권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빙강사에게는 강연으로 기부하는 한해로 정하자.
- YCF(YOUNG CEO FORUM)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간개발연구원 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럼으로 발전시키자.

지자체 소식

• 서남권 아카데미 개설



전남 목포시 서남권 평생학습센터(원장 박대석) 주최, 본원 주관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교육장으로 '서남권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오후 4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의 "서해관광 개발 전략과 서남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을 가졌으며, 향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진도학당 개설



전남 진도군(군수 김경부)과 본원은 진도군민들의 인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군민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진도학당'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상천 정상천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하여 "지방자치와 주민능력 개발"을 주제로 개강식을 개최하였으며, 군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및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21C 통영 아카데미 개설



경남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주최, 통영시와 본원 주관으로 공직자와 주민들의 인식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인재의 양성으로 통영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1C 통영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 오후 2시 통영시민 문화회관에서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의 "한국인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을 가졌으며, 향후 첨단 지식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05 담양포럼 개설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 주최, 본원 주관으로 21세기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05 담양포럼'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 오후 5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현 정성문화연구원 원장의 "음양오행으로 본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개강식이 개최되었으며, 향후 군민과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폭넓은 지식과 교양 함양으로 담양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성도GL(대표 김상래) 임원 리더십과정 개강

인간개발연구원의 법인회원인 (주)성도GL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과정이 3월 3일(목)부터 총 16주간 진행됩니다. 내면적 자질 개발로 개인은 물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돕고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이번 과정을 통하여, 일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마스타씨시스템(대표 박태곤) 임원 리더십과정 개강

세원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더십 및 성과향상 교육의 성과에 힘입어 세원E&T(주)의 협력업체인 (주)마스타씨시스템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과정이 3월 5일(토)부터 총 16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고객 친화적 System 구현”과 “미래지향적 Solution 제공”이라는 기업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PL 64기 일반인 과정 개강

퍼스널 리더십 프로그램은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자신을 동기부여하며,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정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기확신의 능력을 습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EO, 임원, 중간관리자, 전문직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과정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신의 꿈과 조직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 일시 : 3월 12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개포동 본사 교육장

· 인원 : 8명 내외 소그룹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 리더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 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 조직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 석세스플래너 포함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 2202-8700 (F) 445-2086 (H) www.lmikorea.com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경쟁력평가원 (여의도지사)

(T) 785-3658 (F) 785-3659 (H) www.cvikorea.net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 우리은행 132-055539-41-502

·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원가입 문의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식생활문화와 건강

허봉수 한국섭생연구원 원장

한국의 전통음식은 오랜 농경생활 속에서 정형화된 식생활문화의 소산이다. 장(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김치, 젓갈류와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과 여러 음식재료들을 배합하여 맛을 내는 찌개, 탕, 전골 등 조리법에서 독특한 식생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또 한국인이 자랑할 만한 값진 유산인데 다음 두 가지 직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전통음식은 식생활문화의 소산

첫째, 각 식품군의 효용성을 근거로 식품의 합리적인 섭취 비율을 안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곡식, 채소, 생선·육류, 과일, 효용을 각각 양(養), 충(充), 익(益), 조(助)로 구분하여 말한다. 즉 곡식(오곡)을 주식으로 몸의 기력을 기르고(養), 채소로 모자라는 것을 채우며(充), 생선·육류로 기력을 돋우고(益), 과일로 원활한 생리활동을 돕는다(助)는 뜻이다. 養·充·益·助란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균형식의 지표인 셈이다.

둘째, 동양사상의 뿌리인 음양론에 바탕을 둔 체질인식이다. 사람의 몸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한열(寒熱)·건습(乾濕) 반응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름에는 밖이 뜨겁고 안이 차다. 겨울에는 밖이 차고 안이 뜨겁다' 라고 흔히 표현한다. 채소나 과일도 찬 것과 뜨거운 것을 가린다. 한국인은 여름엔 삼계탕을 즐겨 먹으며 겨울철엔 메밀국수를 별미로 친다. 음양으로 보면 삼계탕의 재료인 인삼, 참살, 닭고기, 마늘, 녹각 등의 기질은 뜨거운 양(陽)에 속하고, 메밀은 차가운 음(陰)의 기질을 지니고 있다. 여름철 삼계탕은 속을 뜨겁게 데워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고, 겨울철 메밀국수는 속을 식혀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다. 인체 생리의 한열 반응을 음식물의 기질과 조화시킴으로써 달라진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계절을 나는 슬기이다.

민간요법에도 음양의 이치가 담겨 있다. 설사가 나면 감꼭지나 밤의 속껍질을 달여 먹인다. 감꼭지(陰)는 양체질의 사람에게, 밤(陽)속껍질은 음체질의 사람에게 잘 듣는다. 몸이 차고 습해서 땀을 낼 때 개구리밥(부평초?陽)을 약제로 쓰고 산간에서는 찬비에 젖어 몸이 부을 때 버섯국(陽)을 끓여 먹인다.

한의학의 약물학인 본초학(本草學)은 그 정수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양(形), 빛깔(色), 기운(氣), 맛(味)을 살펴 약물의 본성(藥性)을 규명한다. 특히 氣와 味를 중시하여 기

미론(氣味論)이라 한다. 또 다섯 가지 맛(五味)을 오장(五臟)에 배속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흔히 어린 사슴뿔(鹿茸), 인삼, 옹담을 보약제로 쓰는데, 이것들은 양물(陽物)이라서 몸에 열이 많은 양체질의 사람에게겐 쓰지 않는다.

음양을 안배하여 자연조화를 모색하는 식생활양식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풍토를 지닌 한국은 사람의 체질이 나 동식물의 기질이 다양할 뿐 아니라 식생활 전통이 농경·공동체 사회의 틀 속에서 싹터 왔다. 다양한 기질을 지닌 음식재료들을 적절하게 배합 조리하여 재료들의 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누가 먹어도 탈이 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이 같은 직관이 싹트지 않았나 싶다. 앞서 소개한 찌개, 탕, 전골 등 전통 조리법도 이와 무관치 않다. 寒·熱과 乾·濕을 음양의 짝으로 안배하여 자연조화를 모색하려 한 한국인들의 직관의식은 이처럼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 전통에 내재된 체질인식은 18세기 초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날에 와서야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이제마 선생의 사상학을 기초로 사람의 체형, 생리·심리적 경향, 진동자에 대한 반응, 오링 테스트, 맥(脈)질기 등을 통해 체질을 분류하고 '체질별 권장·금지식품 목록'을 설정하여 식생활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양학자들로부터 편식을 조장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질개념을 식생활에 도입하려면 사람의 체질과 동식물의 기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류개념과 조화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체질분류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데 있다.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제마 선생은 체질에 따른 사람의 성정(性情)과 병리(病理)를 밝히고 같은 처방이라도 체질마다 약제를 가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질별 권장·금지



식품 목록도 이를 근거로 훗날 한의사들이 정리한 것일 뿐 분류체계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의 체질과 먹거리 사이에는 음양의 교감이 있어야

이것들에 대해 1980년부터 필자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음식은 따뜻하다 하고 어떤 음식은 차다고 할까? 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탈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연구하던 끝에 동식물의 생태는 태양과 물에 대한 유기적 반응에 의해 결정되고, 또 그것은 차고 따뜻한 자체의 기질에 따라 음양의 상대요소를 찾아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체생리의 한열·건습 반응도 이와 같아서 몸이 따뜻한 사람은 찬 기질을 지닌 것을 먹고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기질을 지닌 것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태양과 물에 대한 동식물의 유기적인 반응 양태들을 추적하여 '체질분류요소'로 삼고, 이를 토대로 90년대 초에 '동·식물 체질분류표'를 완성했다. 그러나 태양과 물에 대한 동식물의 생태·생리적 유기반응과 음양의 상대성에 입각한 생명활동의 방향성이라는 자연조화의 이치를 기동줄거리로 하여 체질별 섭생법을 전개하였다.

음식은 저마다 특정한 토양과 기후풍토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자기 생명력을 키워온 생명의 산물이다.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리균형에 필요하나 음양의 상대요소를 채워주는 기질적 존재이기도 하다. 사람의 체질과 먹거리가 되는 동식물의 기질 사이에 음양의 교감이 있어야 원활한 영양활동과 생리적 균형이 이루어진다. 섭생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단순한 영양활동이 아니라 자기 체질과 음양의 상대관계에 있는 자연의 요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체의 생리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생존양식 즉 자연조화의 이치로 보고 있다.

사람의 먹는 행위는 자연과 조화 이루는 생존양식

무엇보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동식물의 체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생태체질론이 참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체질에 따른 생태섭생'이라는 본격적인 체질론의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요소들이 많다.

체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양학이 추구해온 '영양의 균형', 즉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체질은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체질과 상대되는 요소를 찾아가는 생명력의 표현이자 생명활동의 방향성이다. 달리 말해서 사람의 섭취대상이 되는 동식물은 영양물질이기에 앞서 사람의 체질과 상대조화를 이루어야 할 생명의 요소인 것이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도 그것이 몸의 요구, 즉 체질에 맞는 영양물질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면 생명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체질별 생태섭생 실천으로 이상적 식생활문화 정착

현대 영양학은 '영양과 열량의 균형'을 추구하며, 영양학의 성과는 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개개인 몸의 요구를 읽을 수는 없다. 영양학에서 다 다른 개개인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상적인 미래의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체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심과 생태체질섭생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 (人間)



허봉수 한국섭생연구원 원장

1960년 생 / '90 고려대 식품화학 및 응용영양학 석사 / '98 경희대 식품영양학 박사 / '80 섭생연구 시작 / '93 식품 및 생약연구소 주임연구원 / '94 십자병원 영양연구실장 / '95~현 한국섭생연구원장 / '97 복지연합신문사 이사 / 한국 영양학회 대의원 / 서강대 섭생건강학 강사 / KBS, MBC, SBS TV 다수 출연 및 일간지 연재 / 현 한양대 사이버대학 강사, 선문대 음양체질과 건강학 강사



무한한 잠재능력에 불을 지펴라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인간의 잠재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잠재능력은 무한하나 사용된 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3%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과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아인슈타인도 10%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잠재능력의 개발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 중에서 빙산의 일각만을 사용한 채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능력의 한계점까지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퍼스널 리더십은 무한한 가능성을 자각하는데서 출발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믿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다만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라서 성공

을 맛보지 못할 뿐이다. 퍼스널 리더십은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데서 출발하는 자기성찰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 육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영국의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는 1954년에 1마일을 4분대에 주파하는데 성공했다. 당시에 '마의 4분벽'이라고 하여 불가능한 목표로 간주되었던 기록이 깨어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하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 벽이 깨어졌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다른 수십 명의 육상선수들이 간단히 그 벽을 뛰어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쳐 놓았던 한계점을 머리 속에서 지우고 나니 새 기록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마라톤도 마찬가지다.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게 어디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마라톤 우승 기록은 끊임없이 단축되어 오고 있어 처음의 3시간대에서 2시간 30분대, 2시간 10분대, 2시간 4분대까지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이제

마라톤을 2시간에 주파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풀 코스를 뛰는 것은 프로 선수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너도나도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1km를 뛰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5km, 10km, 하프코스, 풀 코스에 도전하여 인간의 도전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 주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전력투구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인간이 목표를 정하고 전력투구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일까.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LMI리더십의 설립자인 폴 마이어 회장은 “성공이란 가치있는 자신의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항상 꾸준히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에 참된 성공을 맞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는 성공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다. 상대적 박탈감이 성공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엔 배고픔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성공의 지표였다. 그러나 지금 절대빈곤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성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까지 오죽하면 생겨났을까. 따라서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는 찾을 수 없다.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퍼스널 리더십은 바로 자기성찰 리더십

퍼스널 리더십이란 바로 자기성찰 리더십이다. 성공도 실패도 전부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CEO는 자기성찰 리더십과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고경영자 자신이 잠재능력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 자신에게 무한한 잠재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그 능력이 아직 미개발된 상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엄청난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잠재능력을 흔들며 깨움으로써 조직의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리더가 그 꿈과 비전을 미리 볼 수 있을 때 조직은 생동감을 띄게 된다.

다음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무한한 잠재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은 다소 실력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재능력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포용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된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감동을 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바로 칭찬이 상대방의 잠재력에 불을 지피는 뇌관이 되는 것이다.

리더 자신의 잠재능력과 부하직원들의 잠재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구축되면 기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위대한 기업들을 보자. 그 곳에는 불타는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도구, 꿈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바로 꿈의 목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는 많은 꿈으로 부풀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꿈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된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꿈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장상 前 국무총리서리는 <지금도 나는 꿈을 꾸다>라는 책을 발간해 꿈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현재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적어보자. 어렸을 적 꿈도 꺼내어 보자. ‘꿈의 목록 50개 이상 작성하기’를 시도해 보자. 머릿속에 있는 꿈은 몽상이 될 수 있지만 기록된 꿈은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임을 인식하자. 잠재능력의 발현은 잃어버린 꿈을 찾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그 꿈의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가치 있는 일에 목표를 정



해보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리더의 꿈과 부하 직원들의 꿈의 목록을 모아서 꿈의 페스티벌이라도 열어보면 어떨까. **人間**

아인슈타인의 뇌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천 재의 대명사, 아인슈타인. 그의 뇌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우리와는 뇌가 어떻게 다르기에 그런 세기의 천재가 될 수 있는 건가. 그의 천재성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가져봤을 것이다. 불행히 그의 생존시엔 오늘날 뇌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되지 않아서 기능적인 연구는 되어 있지 못하다. 하지만 그의 사후 25년에 M.다이아몬드 박사가 뇌를 보관하고 있는 병리학자로부터 절편을 받아 면밀한 연구를 하여 발표했다. 먼저 천재는 유전이나 환경이나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많은 시비가 있어 왔지만 결론은 둘 다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즉 둘 다를 잘 갖추어야 세기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이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타고 난 두뇌에 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

다음, 머리가 좋다는 건 신경세포나 그 연결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신경세포보다 보조 역할을 하는 글리아세포이다. 이 세포는 혈관 벽에 붙어 있어서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즉 화학물질, 이온조절, 신경 전달물질 조정 및 성장 인자 등 신경세포의 정상적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글리아세포가 활성화되어야 신경세포의 기능도 원활해진다.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을 질적으로, 깨끗이 해주며 실수가 없게 해준다. 그리고 이 세포는 평생동안 증식을 계속함으로써 신경세포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미에린막으로 축삭을 덮어 신경 전달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글리아세포가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현저하게 증식되어 있다. 특히 전두전야(제9야(野))에서 현저했는데 그 보다 두

정엽 전야의 제39야에서 가장 증식이 잘 되어 있다. 여기는 직접 감각 정보가 전달되는 곳이 아니고 몇 단계 거쳐 온 고급정보를 관장하는 연합야의 연합이라 할 수 있는 부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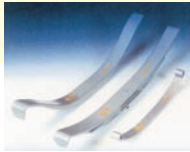
직접 감각이 입력된 1차 정보를 재료로 감각야에서 2차 정보를 만들고 그걸 다시 연합야에서 3차 정보로 만들어 상위의 연합야의 연합야인 4차 정보센터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39야는 전두엽의 전두전야(9야)와 함께 컴퓨터로 치면 메인 컴퓨터 역할을 하며 여기가 총 지휘사령부이다. 이 부위의 글리아세포가 아인슈타인의 경우 보통 사람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다는 건, 천재란 글리아세포와 연관이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두정부 연합야인 39야는 각회(角回)라고 불리는 곳으로 진화적으로는 늦게 발달되어 미에린막도 늦다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가 언어 중추라는 사실도 놀랍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영성난 돌변은 유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는 언어기능 중 문자언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고도의 지적담당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위는 지적자극에 특히 민감하며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실제로 쥐 실험에서 적절한 지적자극, 좋은 환경과 영양을 공급한 결과 그 부위 무게가 특징적으로 16%나 증가하였으며 미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저하게 짧아졌다. 그만큼 머리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타고 난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는 후천적인 환경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결론이 된다.

지적인 환경과 적절한 뇌 영양 공급이 천재로 가는 길이다. **人間**



판스프링 / 코일스프링 / 정밀스프링 / 금형스프링 / 스테빌라이저바 / 각종 차량용 시트 / 코일서비스센터 / 건축용 성형강판



“스프링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에 스프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편리한 생활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스프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 시계 등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기차, 선박 등 각종 운송장비,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등
최첨단 IT부품에 이르기까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스프링 —
대원강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大圓鋼業株式會社

DAEWON KANG UP CO.,LTD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5
Tel.02-3455-7300, 7400 Fax.02-3455-7345~8